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장치영 chiyoun.ja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ETF Catch-up

Not Enough Copper

관세 리스크를 반영 중인 구리 선물 가격

8월 7일 미국 구리 선물 가격은 장중 파운드당 6.77달러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미국으로 물량이 집중된 영향이다. 주요 거래소 재고 중 미국 비중이 약 70%까지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재고 하락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관세 부과 결정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은 조정 받을 수 있으나, 타이트한 수급과 구조적으로 높아진 수요를 감안할 때 구리 가격은 높은 레벨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 물자가 된 구리, 높아진 안전 재고 수요

미국 내 구리 재고의 상승세는 관세 불확실성 회피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이후에도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5년 11월 구리가 미국 핵심 광물로 지정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전략 물자로서 구리의 안전재고 확보 수요가 늘어난 점이 미국 내 재고의 구조적 증가를 이끌고 있다.

구리는 주요 전략 산업의 필수 원자재로서 중장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S&P Global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6년 2,920만 톤에서 2040년 4,230만 톤으로 약 45%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전통 산업 수요에 더해 에너지 전환, 전력망 증설, 전기차, 데이터센터, 방산, 로봇틱스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반면 공급 제약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신규 구리 광산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17년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2020년 이후 신규 광산 발견 건수 연평균 5건에 불과하다. 신규 광산 확보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광산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광산 인수 비용(M&A)이 신규 개발 비용(Build)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급 부족이 만성화되는 국면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존 광산 기업들의 레버리지 효과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리 관련 ETF List

구리 관련 ETF는 구리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과 구리 광산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CPER은 대표적인 구리 선물 ETF로 구리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다. 다만 장기 투자 시 롤오버 비용 발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COMEX 구리 선물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CME 프리미엄 되돌림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2) 구리 광산 ETF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구리 가격에 대한 베타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관련된 ETF로는 COPX, COPP, ICOP, COPI가 있다. 이 중 COPX는 구리 광산 ETF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종목 당 비중 상한을 4.75%로 제한해 구리 광산 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구리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개별 광산의 공급 차질 리스크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종목 집중도를 낮춘 분산형 구조가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도표 1. 주요 거래소 구리 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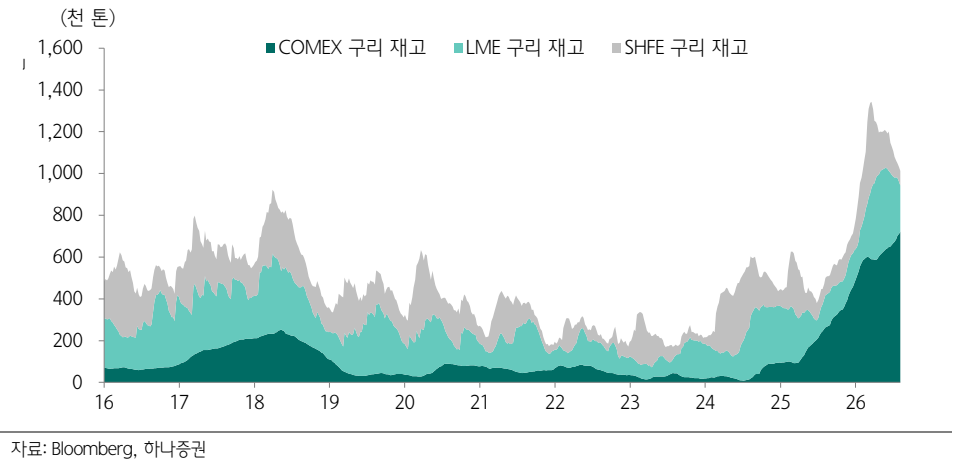


도표 2. 미국으로 쏠림이 심화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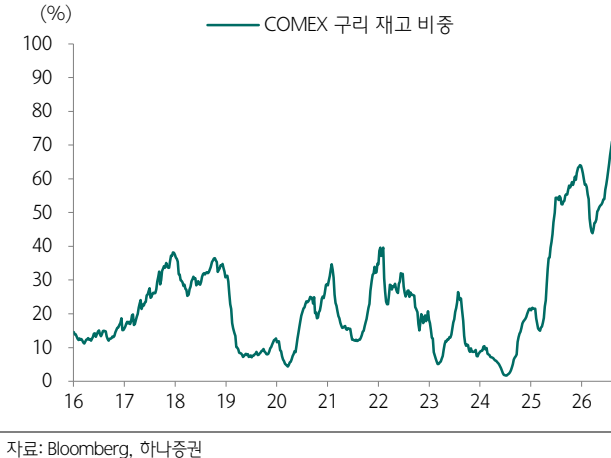


도표 3. 구리의 전략 자산화로 재고 축적 필요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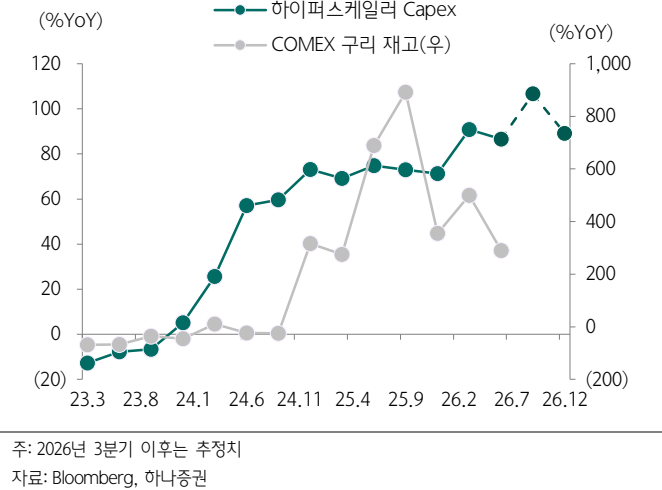


도표 4. 구리는 주요 전략 산업의 필수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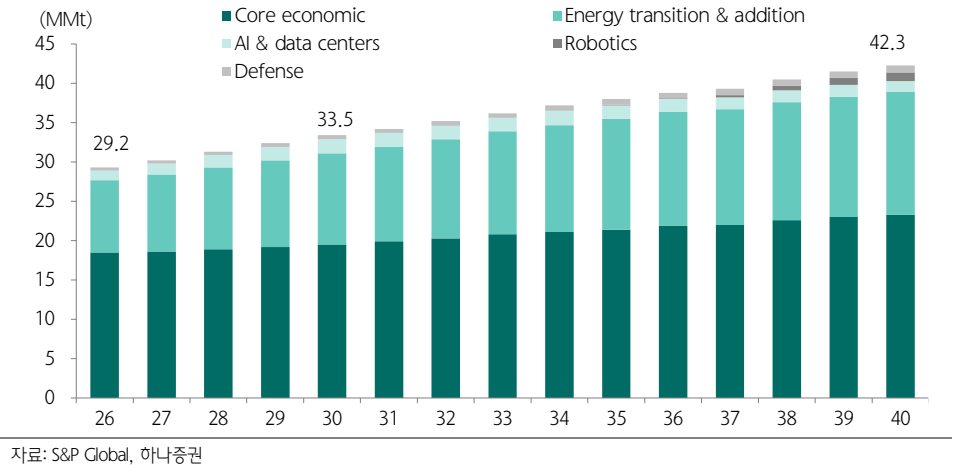


도표 5. 2020년 이후 신규 구리 광산 발견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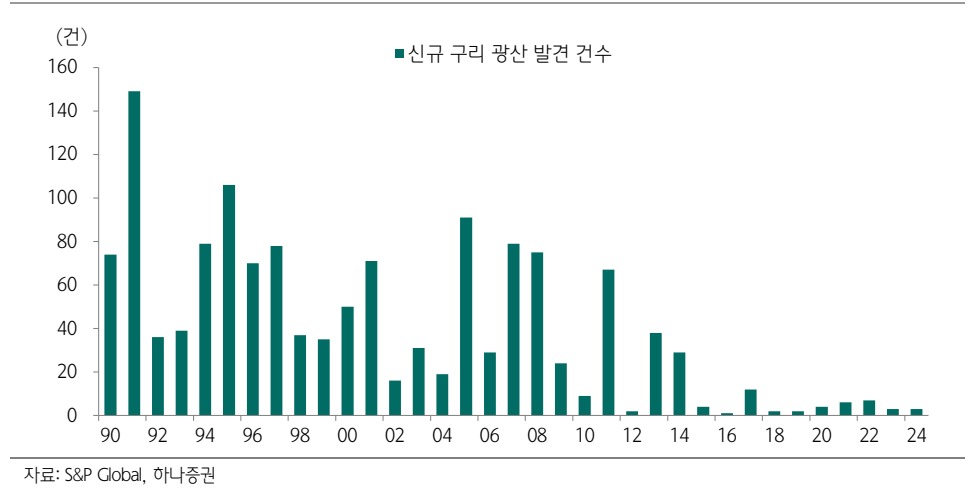


도표 6. 구리 광산 개발 소요 기간은 17년 이상으로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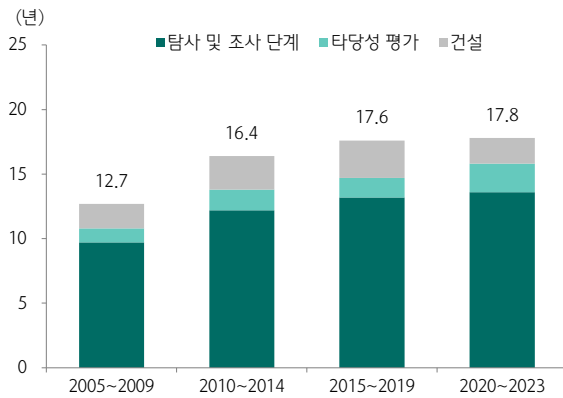


도표 7. 기존 구리 광산 프리미엄 상승: M&A > Bu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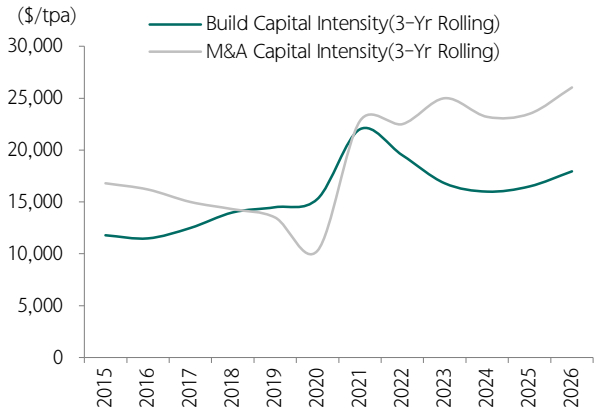


도표 8. 구리 광산 ETF의 초과 성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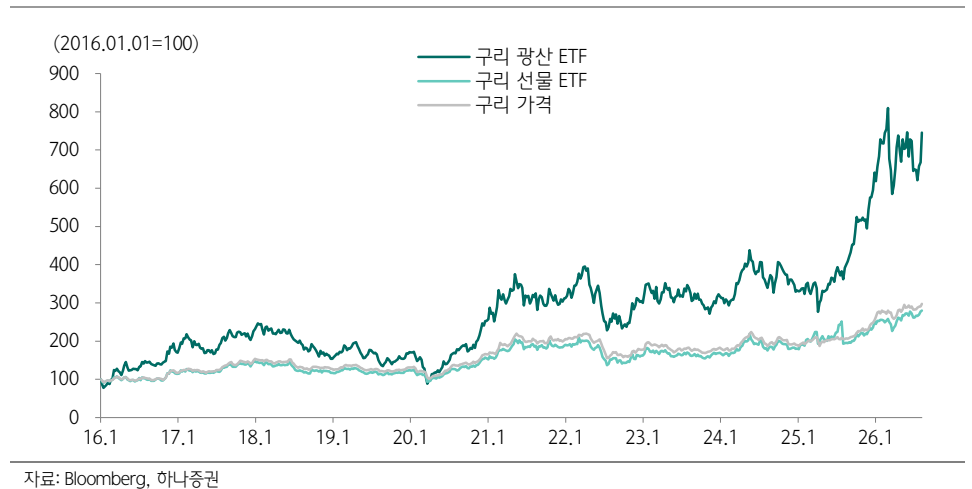


도표 9. 구리 관련 ETF

티커	ETF	투자 대상	구리 베타 (1Y)	보수	1M	수익률(%) 3M	YTD	AUM (백만 달러)
CPER	United States Copper Index Fund	COMEX 구리 선물	1.11	0.97%	5.8	5.0	14.9	756
COPX	Global X Copper Miners	구리 광산	1.89	0.65%	16.9	4.1	24.7	8,320
COPP	Sprott Copper Miners	구리 광산+실물 구리	1.81	0.66%	14.0	7.6	24.6	297
ICOP	iShares Copper and Metals Mining	구리 광산+종합 금속/광물 기업	1.62	0.47%	14.9	4.9	26.4	479
COPJ	Sprott Junior Copper Miners	중소형 구리 광산	1.69	0.75%	14.8	4.3	15.7	167
EMET	VanEck Copper and Electrification Metals	구리+전력화 관련 광물 광산	1.71	0.62%	13.1	-4.5	18.7	3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0. COPX 구성 종목 TOP 10

종목	비중(%)
Hudbay Minerals	5.6
Teck Resources Cls B	5.4
BHP Group	5.2
First Quantum Minerals	5.0
KGHM Polska Miedz	5.0
Antofagasta	5.0
Southern Copper	4.9
Glencore	4.8
Freeport-McMoRan	4.7
Zijin Mining Group Cls H	4.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COPP 구성 종목 TOP 10

종목	비중(%)
Freeport-McMoRan	25.1
Teck Resources Cls B	9.9
Antofagasta	8.8
KGHM Polska Miedz	5.1
Southern Copper	4.9
First Quantum Minerals	4.8
Sprott Physical Copper Trust	4.6
Hudbay Minerals	4.4
Lundin Mining	4.2
Capstone Copper	3.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2. ICOP 구성 종목 TOP 10

종목	비중(%)
Grupo Mexico Cls B	8.2
Anglo American	8.0
Freeport-McMoRan	7.8
BHP Group	7.8
Teck Resources Cls B	5.4
Evolution Mining	5.1
Rio Tinto ADR	4.9
Southern Copper	4.6
Antofagasta	4.4
First Quantum Minerals	4.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3. COPJ 구성 종목 TOP 10

종목	비중(%)
Ero Copper	5.3
Trekor Metals	5.3
Atalaya Mining Copper	5.2
Faraday Copper	4.7
FireFly Metals	4.3
Osisko Metals	4.3
Amerigo Resources	4.2
Ivanhoe Electric	3.9
Solaris Resources	3.7
Sociedad Punta del Cobre	3.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